



“한국경제 기술혁신 견인하는 심장 만들 터”

백종진, 한컴 대표 신임 협회장 취임
“모든 지혜 모아 새로운 벤처시대 열자”

(사)벤처기업협회 백종진 신임회장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새로운 회장으로 맞이하였다. 백 회장은 어려움에 빠진 한컴을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알찬 기업으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벤처 2세대 주역이다. 회장으로 취임한 그가 앞으로 협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취임일성을 통해 듣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경제에서 벤처의 의미는 단순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관찮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이 수적으로 90%, GDP 비중의 60%를 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안이 한 차원의 얘기도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꽃인 기업이, 그것도 건실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우량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국가 산업경제력이 확보되는 절실한 필요 때문에 '벤처'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의 500대 기업 평균 수명은 40여 년, 일본 100대 기업도 3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나이는 32.9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는 삼성·현대·LG·대우처럼 단기간에 급성장한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중소기업이 50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은 고작 0.01%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야후,

이베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신흥 거대기업이 탄생 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환경인 것입니다.

이미 국내 대표 대기업들도 다국적, 초국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추구 하는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주체는 탄탄한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회를 대표하는 차원을 넘어 벤처기업의 미래 역할과 임무를 고민하고, 그 성과를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벤처1기, 10여 년의 공과는 한마디로 벤처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태동된 국내 벤처기업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벤처 1세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97년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99년 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과 IT 산업의 급성장과 맞물려 벤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 주체로서 벤처기업의 가능성 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2000년 버블 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한한 가능성 뒤에 숨어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그에 따른 한계를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기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조정을 거치며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벤처 1세대의 공 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벤처의 역사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위를 돌아 보면 참으로 많은 도전과 위협이 산재한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 물결과 중국 등 신흥국가 의 급성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면 자칫 넷크래커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내적으로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존 경제주체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신사업 추진의 한계 에 봉착할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전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겠다는 우리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민족의 우수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벤처2기 VISION “한국경제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기술 혁신의 심장이 되는 벤처”

7대 과제

- 세계 속의 벤처 건설
- 벤처산업을 벤처문화로 승화
- 한국벤처정책연구소 설립
- 사회공헌 벤처기업상 제정
- 회원사 질적 성장 지원
- 기술금융 신설·확대
- 신규회원사 및 창업기업 대상 CEO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벤처2기는 이러한 대내외적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 벤처기업이 가진 핵심역량과 한계를 냉철히 진단하고,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식기반 혁신주도형에 맞는 경쟁력 확보

이를 위해 벤처의 비전을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의 심장이 되자”라고 수립하고자 합니다. 즉, 역동성과 다산다사, 그리고 고위험-고수익이라는 벤처기업의 본질을 살려 지식기반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적합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첨병이 되자는 것입니다.

벤처 2기의 첫걸음을 내딛으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7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회가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세계 속의 벤처 건설’, ‘벤처 문화 확산’, ‘국가정책의 Think Tank 역할 수행’, ‘모범적 기업문화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 **첫째**, ‘세계 속의 벤처 건설’을 위해 INKE를 중심으로 KOTRA 등과 협력하여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실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세계화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다각화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 시각 자체를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 **둘째**로 기존 ‘벤처산업’의 개념을 ‘벤처문화’로 승화시켜 지식·문화산업 부문의 신진 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함으로써 명실 공히 전산업을 망라하는 혁신형 벤처 기업 창출 및 육성의 중심(모태)이 되고자 합니다.

● **셋째**로 국내 산업 및 벤처 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한국벤처정책 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벤처 문화 확산과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벤처정책을 생산하겠습니다.

● **넷째**로 도전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열정에 기반한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벤처기업상’ 제정을 통해 모범적인 벤처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지원함으로써 벤처정신이 널리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회원사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재미있는’ 협회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먼저**, 협회 내 외부간의 Networking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해 회원사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여 회원사간 친밀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초청토론 등을 통해 KOVA의 후원자, 지지자를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회원사간 원활한 사업전환, M&A,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금융을 신설·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전문펀드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기업 성장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 **셋째**, 선배 벤처기업의 성공 및 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규 회원사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CEO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벤처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원사가 되고 주고 말로 받아 가는 벤처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전은 개인 또는 협회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벤처를 둘러싼 모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인이 희망하는 몇 가지 정책적 사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당장 <벤처특별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고대 합니다. 더불어 회수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도 기대합니다. 기술거래 활성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벤처시장으로 마음 놓고 뛰어 들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We Make Dreams Come True!”

제1세대 벤처가 꿈을 만들고 키웠다면, 2세대 벤처는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갈 책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기꺼이 협회 임원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벤처인 모두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정진하여 새로운 벤처 시대를 열어갑시다.

◎ 신규 임원진 리스트

직함	성명	회사명	직함	성명	회사명	직함	성명	회사명
회장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부회장	최신규	손오공		신현국	유플케미칼
수석	김병기	지오인터랙티브	(16명)	최영규	인프라밸리		여미정	디엠플러스
부회장	김태희	케이블렉스		최종엽	신지소프트		유태경	에피밸리
(3명)	최휘영	NHN		허대영	넥스트인스트루먼트		이광석	인크루트
	김경선	한국디엠비		강용구	제너시스시스템즈		이상근	유비쿼스
	김영달	아이디스		강은희	위니텍		이희자	루펜리
	나성균	네오위즈		강태진	한컴싱크프리	이사	임병동	인젠
	배희숙	이나루티엔티		고중석	휴먼메디텍	(26명)	정영택	핸디소프트
	백원인	미라콤아이앤씨		권준모	넥슨		정현경	중앙ICS
부회장	신원호	티엔텍	이사	김경임	아워링커		주영훈	잉카인터넷
(16명)	우성화	티켓링크	(26명)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주혜순	미립기술
	유수형	더존디지털웨어		김종현	유니테스트		지승림	알티캐스트
	이성민	엠택비전		김태철	HMM		하재홍	아이레보
	전하진	인케코퍼레이션		박윤민	디스플레이테크		황호찬	한스바이오메드
	정준	썸리테크		박치민	터보테크	감사	강문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배영훈	니트젠			

* 순서는 성명 가나다순 * 2007년 2월 23일 기준